



한국생산성본부와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KPC 자격 전북지역센터가 주관한 제7회 2010년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가 17일 전북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성황리 열렸다.

신상기기자 kppa62@

정보화 실무능력 ‘맘껏 뽐냈다’

전북대서 경진대회 성황...신설된 다문화가족 부문 등 열전

본보·생산성본부 공동주최

2010년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초·중학생은 물론 대학생, 일반인 등 역대 최대 규모의 815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부문과 다문화가족부문, ROTC부문, 실버부문 등 참여 대상자 부문을 대폭 신설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형제 등 대회가 열린 전북대학교 정보전산원에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려는 출전자도 눈에 띄었다.

“꼭 임상을 하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는 당한 학생들의 출전 의지도 대회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i-TOP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단체상까지 거머쥔 경력이 있다는 서문초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각 부문에 걸쳐 출전했다.

OA부문과 OA-Master부문에 각각 3명씩 출전하는 4~6학년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선생님과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꼭 좋은 결과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다졌다.

역시 지도자 부문에 출전하는 지도교사 이선숙 교사(전주서문초 방과 후 컴퓨터 담당)는 “이번 기회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이 최선을 바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전북도민일보

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KPC 자격 전북지역센터가 주관하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정보화 실무능력 경진대회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 발굴과 육성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제신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주문화방송,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교육사랑연구회, 대한상업교육회전북지부, 전라북도컴퓨터교육연합회, 전라북도컴퓨터학원연합회 등 16개 기관·단체의 후원도 대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있다.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는 출전자들이 물리면서 일선 학교마다 출전자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할 정도로 관심이

이 많아 대회를 개최할수록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넘쳐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국생산성본부 KPC 자격 전북지역센터 김종구 센터장은 “이번 대회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능력을 신장하고 정보화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며 “해마다 대회를 거듭할 수록 출전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개인의 정보화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국가 생산성 증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되며 성적 우수자는 제4회 전국i-TOP경진대회 본선 출전권 부여와 함께 본선대회 성적에도 반영되며, 시상자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에 실시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lea@

롯데백화점 전주점 희망나누기 자선 대바자회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이창현)은 15일부터 3일간, 9층 옥상공원에서 ‘희망나누기 사랑의 자선 대바자’를 진행했다.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전북도 내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빈곤가정아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방용품과 패션잡화, 여성류, 남성, 스포츠류, 라제리 상품군 등이 참여해 바자 특별기획상품전

과 바자 초특가 상품전으로 저렴하게 판매됐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강정훈 남성이 정미장은 “도내 어렵고 소외된 빈곤 가정아동가정을 돕는 희망나누기 캠페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바룩 작은 사랑이지만 빈곤아동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lea@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15일부터 3일간, 9층 옥상공원에서 ‘희망나누기 사랑의 자선 대바자’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제공

가구업체 ‘폐기물 부담금제’ 반발

“과금 주체 완성품 제조업체만 떠안은 것은 부당”

환경부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가구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가구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관련 법령이 개정돼 과금 주체가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최종 단계 완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 변경되면서 가구업체가 포함됐고 올해 처음 부담금이 부과됐다.

당초 과금 대상은 합성수지 제품 등 환경오염원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였다. 그러나 2003년 폐기물부담금제도로 이름이 바뀌어 세부사항이 변경되면서 유해업체가 과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2008년 다시 한번 법이 개정돼 가구업체가 과금 대상으로 편입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 특판으로 들어가는 세트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가구사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부엌가구를 납품할 경우 보통

수납장, 싱크대 같은 가구제품은 물론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같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든 생활가전도 함께 묶여서 들어가는데 이때 가구사는 일부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해당 제품을 조달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가구사가 ‘부엌가구’라는 최종 단계 완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부담금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가구는 가구사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조대리석 업체, 합성수지업체 등 협력사와의 관계를 통해 제조되는 것인데 완제품이 ‘가구’라는 형태로 들어가는 세트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구사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부엌가구를 납품할 경우 보통

제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단어”라며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공단측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을 나온 조사관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가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같은 원료는 그 제품 자체로서는 온전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 완제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어디냐가 과금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 브랜드 가구사들은 환경 오염 물질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kimws@

평택농촌의 주간시황

전기전자 중심 한 종목 매매에 집중하자



이렇게 올라 버린 지수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2009년 고점을 향해 상승하거나

지난주(10/11~10/15) 국내 증시는 만기일 맞이하여 변동성에 의해 조정을 받았으나 주 후반 바로 회복하며 다시 1,900선에 안착하였다. 상승 탄력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7주 연속 상승세이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G20 정상회의 미국의 중간선거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 등 기대감은 여전히 많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 이전에 발표되는 예비실적 발표에서 다우지수의 주요 기업들은 양호한 예비실적을 발표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 지표는 시장의 관심에서 뒤로 밀려나 있으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실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와 미국의 중간선거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정치적 이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는 흔들리는 지지율 속에서 앞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오바마 정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기대감과 맞물려 다분히 정치적 이슈에 의한 것이고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기적 자금까지 맞물린 유행성 정세이다. 이제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시황들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은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난 좋다고 하는 어떠한 경제학적 논리에도

그때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우선이고 시장이 정답이다. 만일 지금도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인드를 바꾸길 권한다.

지난주 시황 글을 통해 전기전자 업종 내 낙폭과대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매수할 것을 권하였다. 실제 대부분 전기전자 종목이 인텔의 사상최대 실적 발표로 상승하였고 이는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종목들의 추세를 돌리고 있다. 매수한 독자들은 이제 보유투대응하면 좋을 것이다. 최근의 시장은 특정 업종을 상승 시켰을 때 적어도 보름의 시세는 준다. 물론, 독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당히 매매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전기전자 업종 내 종목 순환매는 현재 시장을 유지한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은 현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종목 장세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1,850선을 이탈시키지만 않는다면 그다음 추세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사실 전체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은 환차익을 노린 부분이 크고, 전 종목에서 매수할 한 만큼 현재 시장을 크게 무

너뜨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지난 주 초반의 조정에서 전기전자 종목에 적극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시장은 한 차례 추가 상승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그 상승은 수급을 보거나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고 중간선거와 FOMC 회의에서 나올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 당분간은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시장이 정치 이슈를 선택하였고 10월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꾸준히 종목 순환을 만드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말고 자신 있게 대응하자.

글 / 정오영 평택농촌투자전략연구소 대표

- [주요 이력]
- 前 동아일보 (사이버고수의 증시전망) 연재
 - 前 한국경제TV 전속애널리스트
 - 前 MBC (뉴스추), [라디오 뉴스터치], [경제매거진M 스페셜], KBS 라디오, 이데일리TV, 매경증권TV 등 출연, 신문사 및 잡지사 인터뷰 (조선일보, 레이디경향 외 다수)
 - 現 (주)평택농촌투자전략연구소 대표이사
 - 現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농촌)

도내 어음부도율 큰폭 하락

지난달 0.26%, 한달전 비해 0.32%p 낮아

지난달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이 전월에 비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5일 발표한 ‘9월중 전북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제외)은 0.26%로 전월 0.58%에 비해 큰 폭(-0.32%p)으로 하락했으며, 전월 (유)효승종합건설(2008년 3월 부도)이 발행한 약속어음(27억원) 교환 지급을 제외하고 비교하더라도 0.1%p가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제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부도금액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주(0.90%→0.35%), 남원(0.52%→0.00%), 군산(0.30%→0.13%), 정읍(0.11%→0.06%)은 하락했으나, 익산(0.09%→0.23%)은 상승했다.

한편, 지난달 신규 부도업체수는 5개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신설법인수는 121개로 전월 154개에 비해 33개 감소했다. 김원수기자 kimws@

전북銀 ‘JB우먼파워에움’ 출시

전북은행은 여성고객에게 다양한 우대서비스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여성전용우대예금인 신상품 ‘JB우먼파워에움’을 오는 1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여성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특화상품으로 입출금통장과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2가지 예금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다.

팔방미인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출금통장 거래고객이 가입 후에 결혼이나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거래실적에 따라 축하포인트 5만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김원수기자 kimws@

“이 신발 신고, 지소연 언니처럼 꿈을 펼치세요”

현대차 전주공장

저소득층 어린이에 ‘희망운동화’ 선물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17세이하 대한민국 언니를 알지? 그 언니들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무척이나 어려웠으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6일 전주시 서신동 소재 롯데백화점 9층 특별행사장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에 ‘희망운동화’ 선물을 하였다.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17세이하 대한민국 언니를 알지? 그 언니들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무척이나 어려웠으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6일 전주시 서신동 소재 롯데백화점 9층 특별행사장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에 ‘희망운동화’ 선물을 하였다.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17세이하 대한민국 언니를 알지? 그 언니들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무척이나 어려웠으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희망운동화”란 한창 김수성이 예민하고 유행에 민감한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친구들 앞에 주눅 드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천만원을 들여 마련한 특별한 선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롯데백화점 9층 특별행사장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에 ‘희망운동화’ 선물 행사를 가졌다.

도내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어린이 2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희망운동화 전달 특별행사장은 평소 신고 싶었던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이것저것 고르고 신어보느라 정신없는 어린이들의 행렬로 한바탕 북새통을 이루었다. 한 어린이는 “평소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보면 왠지 주눅이 들고 부럽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와서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골라 가질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정재근기자 jgieong3@

로/또/복/권		(411회)
당첨번호	보너스 숫자	
11, 14, 22, 35, 37, 39	0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일치	953,227,563
2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52,957,087
3등	5개 숫자 일치	1,446,47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